



안철수 대선 가는 길, 아이젠하워 벤치마킹

(미국 34대 대통령)

측근들 '노르망디 영웅' 집중 연구

안철수(사진)는 어떤 식으로 대선에 참여할까. 정당 조직을 대체할 포럼과 전문가 지지 그룹인 싱크탱크를 만들어 세(勢)를 확장한다는 계획은 드러났다.

하지만 그 이후의 과정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그의 향후 행보를 짐작하게 해주는 인물이 미국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이다. 최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 원장 주변에선 아이젠하워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아이젠하워가 처했던 환경, 그리고 그가 대통령이 된 방식이 안 원장의 현재 상황과 유사점이 많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안 원장 측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사람들이 ‘아이젠하워 대통령 모델’을 집중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50년 9%에 불과했던 TV 보급률은 선거가 실시된 52년 34.2%로 4배 가까이로 뛰었다. 상대 후보(민주당의 A E 스티븐슨)가 이 같은 시대의 변화를 꿰뚫지 못하고 “TV는 천박한 것”이라며 무시하고 있을 때 아이젠하워는 미국 대선 사상 최초로 TV를 선거에 끌어들이면서 ‘이미지 정치’를 시작했다.

그는 TV를 통해 ‘나는 아이크가 좋아(I Like Ike. 아이크는 아이젠하워의 애칭)’라는 메시지를 즐기치게 전달하면서 압도적인 우위를 지켰다. 기존 정당 대선 포럼의 기치를 내걸고 초기 정치 행보에서부터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광범위하게 활용하겠다는 안 원장 측의 전략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안 원장이 “정치에 참여하게 된다면 어떤 특정한 진영 논리에 기대지 않을 것”(3월 27일 서울대 강연)이라며 틀을 벗어난 유연한 사고를 강조한 부분 역시 아이젠하워의 정치철학과 비슷하다. 아이젠하워는 대통령 시절 민주당이 의회의 과반을 확보한 ‘여소야대’ 정국이었던 조화와 타협을 강조하며 유연한 정책을 폈다. 군수산업의 비대화를 비판하고 사회보장제도의 강화를 주장하는 등 공화당엔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때론 민주당의 주장을 대변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때문에 당시 민주당 소속 하원의장이 ‘아이젠하워의 사람’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아이젠하워는 대학 총장 시절에도 유연한 사고로 일화를 남겼다. 분관 건물 앞 잔디밭을 가로지르는 학생들이 징계위에 회부되자 “학생들을 징계하는 대신 잔디밭을 가로지르는 통행로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아이젠하워는 아들을 한국전에 참전시키는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고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지켰다. 이 같은 엄격한 자기관리와 친근한 모습이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 미국인들은 로널드 레이건과 아이젠하워를 ‘취임 때보다 퇴임 때 더 인기가 높았던 두 명의 대통령’으로 기억한다. 안 원장 측은 안 원장이 정치에 뜻을 품기 훨씬 전부터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무료로 공급해 온 것과 올해 초 ‘안철수재단’을 만들어 보유 주식의 절반을 내놓은 게 유권자들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맥락에서 비쳐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대선에 나서기 전 이미 전쟁 영웅으로서 국민적 지지를 한 몸에 받았던 아이젠하워와 성공한 벤처기업인으로서의 안 원장을 수평 비교하기는 어렵다. 안 원장 측도 아이젠하워의 리더십을 벤치마킹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욱·강인식 기자 jwkim@joongang.co.kr

양당 러브콜에도 여론 익기 기다려

1952년 대선 직전 공화당 경선 참여

상대 후보 “TV는 천박” 무시할 때

사상 처음 뉴미디어 ‘이미지 정치’

인기 절정의 전쟁영웅 아이크

안 원장과 수평 비교는 어려워

상륙작전을 총지휘해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전쟁영웅이다. 1953년 미국의 제34대 대통령으로 당선돼 8년간 재임했다. 그는 대선에 뛰어들기 직전까지 민주당과 공화당 어느 정파에도 가담하지 않았다. 군 예편 후에는 컬럼비아대 총장을 맡았다.

그가 정치 쪽으로 움직인 것은 자신을 대통령으로 원하는 여론이 한창 달아오른 뒤였다. 아이젠하워는 전쟁영웅이었지만 공화당 색채가 적었고, 일부 현안에 대해서는 공화당에 비판적이기도 했다. 그래서 민주당 소속 현직 대통령인 해리 트루먼은 인기 높은 아이젠하워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서 주기를 바랐다.

공화당도 대대적인 아이젠하워 영입 운동을 벌였다. 양쪽으로부터 ‘러브콜’을 받던 아이젠하워는 52년 대선 직전, 공화당을 선택했고 당내 경선에서 이겼다. 결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꺾고 대통령이 됐다. 안 원장 측은 아이젠하워가 비정치인 출신이고, 공화·민주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었던 점이 안 원장의 강점과 일치한다고 본다.

군 출신인 아이젠하워는 전쟁을 통해 홍보와 선전의 중요성을 체득한 인물이었다. 50년대 초 미국에선 TV의 보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기존 정치에 무임승차 않고 상황 만들 것” 대선 캠프격 포럼 만들어 세력 규합할 듯

→ 1면 ‘안철수’에서 이어집니다

다만 대선 출마 의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조기에 공식화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안 원장 측 관계자는 “안 원장이 당초 총선 전에 대권 도전 의지를 밝힐 예정이었지만, 자칫 총선 구도가 흐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일단 총선 후

1학기 끝나는 6월부터 본격 행동

관훈토론·힐링캠프 출연도 준비

로 공개를 미룬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안 원장은 자신의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힐 첫 번째 무대로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주최 토론회에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훈클럽은 주로 여야 지도부나 대선 주자들을 초청해 정견을 물어왔으며, 지난달엔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

이 참석했다. 관훈클럽은 지난달 안 원장을 토론회 연사로 초청해 놓은 상태다. 안 원장 측은 이와 함께 SBS방송의 연예 프로그램인 ‘힐링캠프’ 출연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박근혜 위원장과 문재인 민주당 통합당 상임고문 등이 출연했다. 문 고문의 지지율은 이 프로그램 출연 직후 급상승했다.

4·11 총선에 패배한 민주당에선 안 원장에 대한 ‘조기 영입론’이 분출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4선에 성공한 이종걸 의원을 비롯해 총선에서 낙선한 김호석 의원 등은 15일 “민주당의 총선 패배가 보약이 되기 위해서는 당의 스펙트럼을 넓혀야 한다. 당 밖에 있는 안철수 원장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원장은 6월 이전까지는 독자적으로 세를 규합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1차적인 대선 준비가 완료될 6월 이후 그가 민주당 대선 주자들과 함께 막판 범야권 후보 단일화를 추진할지, 아니면 제3세력으로서 대선 완주를 시도할지는 미지수다.

안철수가 주목하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특징

- 1 여론의 지지가 높았던 비정치인 출신
1944년 연합군 사령관(노르망디 상륙작전 성공) 1948년 컬럼비아 대학 총장
- 2 출마 직전까지 어느 정파에도 치우치지 않는 행보
1951년 트루먼 대통령의 민주당 대선후보 제안 거절, 공화당 정책에도 비판적
- 3 당시 새로운 미디어였던 TV를 최초로 선거에 활용
1952년 미 대선 사상 최초로 TV를 통한 이미지 광고 'I Like Ike' 제작
- 4 진영 논리 대신 유연한 사고를 통한 사회 통합 중시
1953년 취임 후 '여소야대' 의회와 긴밀한 협력
- 5 엄격한 자기 관리와 친근한 모습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아들을 한국 전쟁으로 보내

아이젠하워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독서의 해 특별한 양성과정
50%할인 이벤트를
4월말까지 선착순 마감합니다

귀한 분으로 모시겠습니다

한우리 독서토론논술에서 교사로 활동하십시오

내 인생의 1막 2장...
한우리독서지도사는 독서멘토입니다.
한우리만의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은
융합형 시대의 독서교육을 통하여
독서멘토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엄마에서 누군가의 선생님이 되실 길을
한우리에서 열어 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 전문가로 최고의 자부심도 드리겠습니다.
아이를 가르치는 즐거움과 성취감까지
'一石三鳥(일석삼조)'의 직업입니다.

독서지도사
양성과정

50% 할인

420,000원 ▶ 199,000원! 인터넛반

수강상담 : 전국공통
1577-1909

중국어지도사
양성과정

한·중 수교 20주년 특별할인!

300,000원
▶
150,000원!

· 지식소속교사 및 병과후교사 합동가능
· 세부사항은 한우리ONS에서 참조
(www.hanurigns.com/edu)
02-6430-2941

한우리독서지도사만이 누리실 수 있는 특별함이 함께합니다

22년의 독서교육 노하우를
부담 없이 배우실 기회가 있습니다

전국 300여개의 지역센터에서
더 편하게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10만여 명의 회원이
전문가 선생님을 늘 기다립니다

한우리독서지도사는
한우리가 개발한 교재를 사용합니다

4월 개강하는 한우리독서지도사 양성과정에서
등록 하십시오. 전속교사 계약 시 교육비 일부
환불 및 신화, 실습과정을 체험 하실 수 있는
기회도 드립니다. 독서지도교사 활동에 대한 자
세한 상담은 한우리 전국 지역센터에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전국 구석구석에 개설된 한우리의 지역센터에
서는 언제나 교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따뜻한 교사상담의 문이 열려있으며 교사의 업
무향상을 위한 스타디 그룹운영과 꿈같은 배려
를 언제나 함께합니다. 더 알찬 인생을 설계 하
실 수있고 자부심도 누리실수있고

아이의 숨은 적성과 진로까지 찾아주는 융합독
서교육의 프로그램과 한우리독서지도사 출신
의 독서멘토를 우리 아이들은 늘 기다립니다.
전국적으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까지의 많은 한우리회원을 전문적으로 가
르칠 한우리만의 독서멘토가 필요합니다.

오랜 세월의 노하우와 교육철학이 담긴 한우리
만의 체계적인 융합독서교육 교재를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유지부) (소통부) (중·고등부)
공간=한우리 한강·다우 스킨스페이스
지능·재능·오래된 프로그램입니다. 배움 새로운 교재를 통해
배움의 기회를 늘려
교육·논술·독서
기술·논술·독서
향상합니다.

한우리독서지도사만의 융합독서교육! **한우리 독서토론논술**

www.hanuribook.com 대표전화 1577-1909 / 교육과정문의 02-363-0111
(가까운 지역센터명과 직원 상담하세요)